

“나도 시인이다” 전교생 시 창작

화순 능주중 260편 시집 발간
시 낭송회·시인과 만남 개최
“시쓰기 이전 두렵지 않아요”
학생 자존감 키우고 신입생 늘어



“처음 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계속 쓰다보니 시 창작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발간돼 나왔을 때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저마다의 개성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2학년 박설 학생)

전교생이 쓴 시 한권의 시집으로 발간돼 전전한 화제를 낳고 있다. 화순 능주중학교(교장 한국선)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130명 학생들이 쓴 시를 모아 시집 ‘우리들의 행복한 시’를 펴냈다.

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담긴 시집은 가깝게는 친구 관계에서부터 멀리는 미래의 꿈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읽기라 해도 무방하다. 시집은 특색교육 ‘1인 1시집 소장하기’의 결과물로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과 배려 그리고 이틀만의 사랑을 담고 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라는 제목은 지난 2005년 발간된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 제목을 떠올리게 한다. 젊은 사형수와 대학교수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소설처럼, 이번 시집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은 물론 친구들의 생각과 꿈도 읽을 수 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로 선정된 능주중은 ‘꿈·지·락’ 행복 학교 여건을 조성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나도 시인이



화순 능주중은 지난해 11월 나희덕 시인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시 읽기와 시 쓰기의 즐거움’ 강의를 개최했다. <능주중 제공>

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학생들이 매월 1회 1편 이상의 시를 쓰도록 장려했다. 이렇게 창작된 시는 연말에 개인당 2편씩 추천작을 받아 한 권의 시집(260편 수록)으로 묶은 것이다.

이건호 교감은 “대부분 학교생활이 입시 위주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꾸준한 시를 쓰게 했더니 학생들의 심성도 밝아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며 “진로활동 시간이나 아침 독서활동 시간에 다양한 책을 읽게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처음부터 시를 짓는 것이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부담스럽고 낯선 과정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하게 한 결과 점차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3학년 정영아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매년 시 쓰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며 “그러나 매달, 매년 쓰다보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교사인 고혜민 교사는 변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고 교사는 “자신의 시를 수정하기 위해 친구들, 선생님과 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시 쓰기를 격려하기 위해 축제 시간에 시 발표회와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교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존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시 쓰기 대회에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도록 독려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시인을 초청해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인인 나희덕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시 읽기와 시 쓰기의 즐거움’이라는 강의를 개최했다. 특히 나희덕 시인의 시가 교과서에 수록돼 있어 학생들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한국선 교장은 이번 시집 발간에 “학생들 모두의 시는 자신만의 감성을 지닌 세상의 단 한편뿐인 귀한 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시 쓰기 교육은 학교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농어촌 지역 학생수가 급감해 폐교 위기에 처한 곳이 적지 않지만 능주중은 올해 신입생 한 한급이 증가했다고 한다. 능주중의 ‘나도 시인이다’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전남교육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4곳으로 확대

광주과학관·문화전당 참여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기관 대표자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최근 광주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광주 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고 지역의 문화적 도시 재생과 문화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력을 다졌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해 참여기관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올해 첫 대표자회의에서는 공동·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함께 실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어린이박물관, 문화 다양성 정책포럼, 광주폴리 투어, 광주문

화기관협의회 뉴스레터 발행, 문화기관 정책 영상아카이브 구축 등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관련 밀도 있는 협업으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매월 1회)와 대표자회의(연2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했다. 문의 062-670-7434.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눈꺼풀’·‘공동의 기억’...영화로 돌아보는 세월호

메이홀·광주극장 상영회

세월호 4주기를 맞아 메이홀&이매진(관장 임의진, 대표 박석인)과 광주극장에서 영화상영회가 열린다.

12일 광주극장에서는 세월호를 위한 진혼곡 ‘눈꺼풀’을 개봉한다. 영화는 제주 4·3사건의 희생을 다룬 영화 ‘지슬’의 오명 감독이 연출했다.

오명 감독은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세월호가 제주로 향했기에 더 큰 무게감으로 시나리오를 쓰며 어른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그는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잘 배웅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아이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슬프고도 아픈 마음을 담아냈다. ‘눈꺼풀’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섬 ‘미륵도’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해 간접적인 영화 언어로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린다.

14일 오후 5시에는 메이홀에서 세월호 다큐멘터리 ‘공동의 기억 : 트라우마’가 상영된다. 메이홀은 광주정신의학연구소 ‘현장화, 현재화’를 위해 생긴 공간이다. 이 영화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영화 ‘눈꺼풀’

참사 이후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공동의 상흔으로 남은 그 기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다.

‘4·16연대 미디어 위원회’ 소속 4명의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세월호 생존학생과 세월호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어른이 되어’(오지수 연출,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름에게’(주현숙 연출, 세월호 부모님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실의 궤’(문성

준 연출), 세월호가 거지 된 목포신항의 낮과 밤의 모습을 담은 ‘목포의 밤’(엄희찬 연출)까지 총 4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처럼 우리의 아픈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세한 사항은 메이홀홈페이지(www.mayhall.co.kr/)를 참조하거나 광주극장(062-224-5858)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기자 ej6621@

“공감·감성의 말로 사람을 끌어라”

나선희 전 아나운서 ‘따뜻한 말로 이겨라’ 책 펴내



“끌리는 사람들의 말하기에는 아우라가 있다.”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인 사회에서 말하기 능력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취업을 앞둔 구직자, 자녀와 대화할 줄 모르는 부모, 이성에게 고백을 못하는 청춘 남녀, 매일 일

무 발표를 해야 하는 회사원 등...

25년 방송 경력과 커뮤니케이션 카운슬링 경험을 지닌 나선희 전 광주MBC 아나운서가 ‘따뜻한 말로 이겨라’(알에이치코리아·사진)를 펴냈다.

책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인 사회생활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스피치 전략에 대해 다룬다. 인간관계에서 빠지는 사람들의 화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겼다.

저자는 말하기에서 발음이나 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과 ‘감성’이라

고 강조한다. 책 제목 ‘따뜻한 말로 이겨라’처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의 바탕은 ‘공감’과 ‘감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저자는 표현능력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표현 능력은 반복 학습과 훈련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지만 ‘내 방식대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른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로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말 잘하려 하지 말고 잘 말하자’고 당부한다. ‘잘 말한다’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진심을 담아 쉽고 간결하게 말하며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원 동아리 30여개 모집...내일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전문가 매칭 사업 참여단체와 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예술동아리 및 전문예술강사 매칭사업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전

문예술강사 매칭) 30~35개 내외를 선정해 최소 500만 원~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코디네이터는 6~7인을 모집 건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17일부터 18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메일(grarte@hanmail.net)로

서류 제출 후 빚고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빚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공모 세부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5762~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